

로프노르출토 목조인면상 과학적 분석

유혜선, 307호 중앙아시아실 18:00~18:30

중앙아시아 로프노르지역에서 출토된 세 점의 목조인면상木彫人面像은 나무를 부조기법으로 조각하여 눈, 코, 입 등을 과장되고 입체감 있게 제작한 다음 가죽으로 전면을 감싼 후 뒷면의 가장자리에서 마감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죽위에는 적색 안료인 산화철 계통(Fe_2O_3)의 안료가 채색되어 있습니다. 인면상의 눈은 마그네슘(Mg)의 함유량이 높은 광물인 활석이나 해포석으로 추정되었으며, 활비비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서 눈동자를 표현하였습니다. 치아의 재질은 인산칼슘이 주성분인 상아나 뼈로 추정되었습니다. 중간 크기 인면상은 적색 안료로 연단(Pb_3O_4)과 산화철 계통(Fe_2O_3) 두 종류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마와 턱에는 얇은 방형의 주석제 금속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 및 콧대 위로 실을 짜서 만든 7가닥의 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인면상도 나무를 부조기법으로 하여 눈, 코, 입을 표현했으나 다른 가면에 비하여 평면적이며, 표면 풍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마와 입 주변 등에 석고($CaSO_4 \cdot 2H_2O$)로 추정되는 백색 안료가 남아 있는데, 원래는 얼굴 표면 전체에 백색 안료가 채색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입과 남아 있는 치아의 크기를 고려해 봤을 때 이 가면에는 9~10개의 치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질은 인산칼슘이 주성분인 상아나 뼈로 추정되었습니다. 가면의 눈은 광물의 감입 없이 구멍만 남아 있습니다.



그림 1. 중앙아시아 로프노르출토 목조인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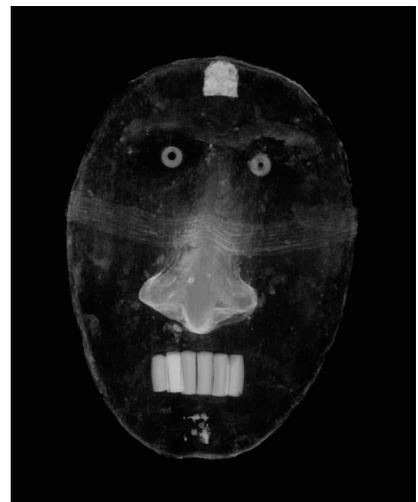


그림 2. 목조인면상 X-선 이미지

1,600년 전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

이상미,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전시는 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 중에 고대 신라와 가야의 무덤에 사용되었던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인물, 동물, 사물의 모습을 한 토기와 토우들이 가득한데 모두 1,600년 전 장송의례에서 사용된 특별한 의미의 제의용 그릇들입니다. 유물의 모양을 따라가면서 그 형태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통과의례는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사후의 세계로 가는 장송의례입니다. 고대의 장송의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현세의 삶이 이어진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거대한 무덤에 많은 께묻거리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후장厚葬 풍습도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무덤에서 나온 여러 모양의 상형토기는 죽은 이의 다음 삶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제의용 그릇입니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새, 상서로운 동물, 뿔, 말, 수레, 배, 집, 등잔 등의 상형토기를 무덤에 부장품으로 묻었습니다. 여기에 죽음을 삶과 연속된 세상으로 바라보려 했던 1,600년 전 사람들의 내세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징을 담은 다섯의 상형토기

상형토기에 담긴 내세관과 장송의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함안 말



그림 1. 함안 말이산 45호 무덤 상형토기

이산 45호입니다. 함안 말이산 정상에 솟아 있는 거대한 무덤에는 아라가야를 통치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말이산 45호 무덤에서 사슴모양 뿔잔, 배모양 토기, 집모양 토기 2점, 등잔모양 토기 등 모두 다섯 점의 상형토기가 한꺼번에 발견되었는데, 한 무덤에서 원형 그대로 가야의 상형토기 장송의례 전통이 보존되어 그 가치가 더욱더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천홍사 종의 특징

이용진, 302호 금속공예실 19:00~19:30

범종은 소리로 일승원음一乘圓音(깨달음)을 얻게 하는 대표적인 범음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종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데, 『삼국유사』 권3 흥법조興法條에는 삼국시대 6세기 백제와 신라 범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달리 삼국시대의 범종은 남아있지 않으며, 현재 가장 오래된 범종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든 <상원사 범종>과 <성덕대왕신종>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은 상원사 범종 계통의 것과 성덕대왕신종 계통의 것이 있는데, 두 계통의 차이는 연곽 안의 연뢰의 표현방식으로 하나는 연꽃 봉오리 형태의 입체적인 연뢰이며, 다른 하나는 연꽃이 활짝 핀 형태의 평면적인 연뢰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은 대부분이 상원사 범종 계통이고, 성덕대왕신종 계통은 일본 운주지雲樹寺 소장 범종입니다.

통일신라 범종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범종은 상원사 범종 계통의 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홍사 범종>도 상원사 범종 계통이지만, 성덕대왕신종의 양식적 요소도 나타납니다.

<천홍사 범종>은 1010년 만든 고려시대의 범종으로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범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예입니다. 이 종은 전체적인 외형은 통일신라시대 상원사 범종 계통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천관 위의 죽절형 음통과 한 마리의 용이 있는 용뉴와 종신에 표현된 상대와 연곽, 연곽 안의 연뢰, 비천과 당좌 등이 상원사 범종 계통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관 가장자리에 표현된 복련의 연관은 성덕대왕신종에서 볼 수 있어 큰 틀은 상원사 계통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성덕대왕신종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의 계승과 함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로 1010년 제작된 천홍사 범종에는 새로운 요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공예품에서 통일신라의 전통을 벗어나 고려적인 모습을 갖추는 시기가 12세기경임을 고려하면, 범종의 고려적인 모습은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홍사 범종>의 고려적인 모습은 종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용뉴의 용은 입으로 천관을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용의 아래턱과 천관을 별도의 기둥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종신 하단에는 연곽 아래 부분에 위패형 명문틀을 만들고 그 안에 제작시기를 기록한 명문을 새

졌는데, 이와 같은 위패형 명문곽은 통일신라시대 범종에는 없던 고려만의 특징입니다. 또한 종신의 비천은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으로 한 쌍이 아닌 한 구가 대칭을 이루며 표현되어 있어, 쌍을 이루며 표현되던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비천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흥사 범종>은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전통을 바탕으로 고려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범종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원사 범종과 같은 외형과 구성을 보이지만, 천관위의 연관은 <성덕대왕신종> 계통의 요소이고, 머리를 들고 정면을 보는 용뉴의 용과 종신의 위패형 명문곽은 고려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칭을 이루며 표현되는 주악비천은 통일신라 <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을 고려적으로 변용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려시대 불교공예품의 고려화가 12세기경부터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고려시대 범종의 고려화는 건국 후 10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 <천흥사 범종>, 고려 1010년, 높이 178cm, 무게 1.2t, 국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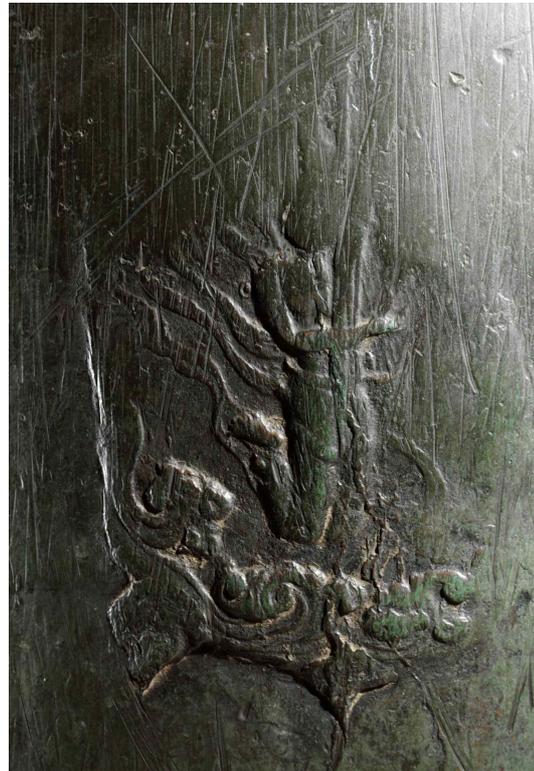


그림 2. <천흥사 범종>의 주악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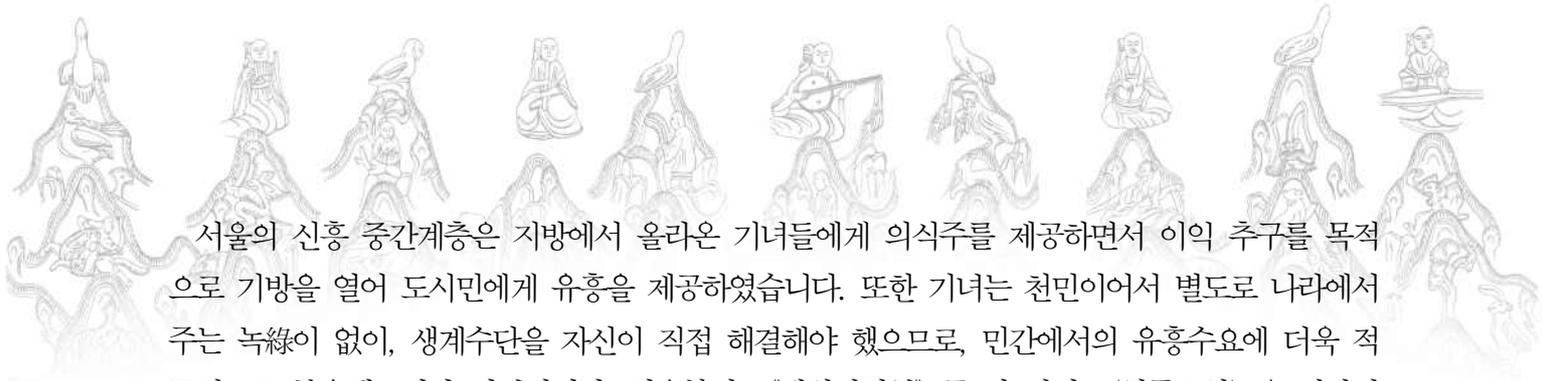
조선후기 풍속화

전인지, 201호 서화 I 실 19:00~19:30

오늘날 흔히 말하는 옛 그림의 ‘풍속화’란 조선후기 풍속화를 가리키며 시농공상에 종사하는 서민의 생활모습을 농경, 도시, 관아, 세시풍속의 장면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풍속화는 조선후기 화단에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와 더불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조선후기 풍속화는 몇몇 선비 화가들의 선구적인 풍속화 제작에 힘입고 17세기 이래 시정의 생활상을 그리는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추어 18세기후반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조正祖(재위 1776~1800) 때에는 도화서圖畵署 소속 화원들에 의한 풍속화 제작이 활발했고 지방에서도 사랑방을 장식할 정도로 저변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후기 풍속화 번성에는 여러 화가들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풍속화의 씨를 뿌린 화가로 조선 향촌의 모습을 처음 그려 소개한 선비화가 윤두서尹斗緒(1668~1715)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김홍도, 신윤복과 같은 화원화가에 의하여 조선후기 풍속화는 비로소 난만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18세기 중후반기의 풍속화는 정조의 각별한 사랑과 문서관료 및 여향부호들의 후원을 받으며 활약한 화원화사 김홍도金弘道(1745~1806이후)에 의하여 주도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20대에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로 손꼽혔습니다. 당시 유명한 감평가였던 강세황姜世晃(1713~1791)은 김홍도를 “조선조 4백 년 만의 놀랄만한 솜씨로 풍속에 더욱 뛰어나 그럴 때마다 구경꾼들이 손뼉을 치며 신기하다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서민들의 생업과 휴식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의 뒷골목 풍경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준 화가는 바로 혜원慧園 신윤복申潤福(1758?~1813 이후)이다. 그러나 명성에 비하면 그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합니다. 빈약한 정보와 흥미로운 그림 때문에 많은 속전이 따르지만, 믿을 만한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원화가라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도화서 화원화가로서 활동했던 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풍속화 부문에 있어서는 김홍도와 쌍벽을 이룹니다. 신윤복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그림들은 도시의 유흥과 기녀를 그린 것들이 많아 이 분야의 대표적인 화가로 손꼽힙니다. 조선후기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이 이루어져 서울이 상업도시로 변모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간계층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은 도시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여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향락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다. 이러한 여가생활의 발전은 새로운 기악妓樂의 수요를 창출하였고 국가에서 주어진 역할이 축소된 기녀는 적극적으로 민간의 수요에 응하게 되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서울의 신흥 중간계층은 지방에서 올라온 기녀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기방을 열어 도시민에게 유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녀는 천민이어서 별도로 나라에서 주는 녹祿이 없이, 생계수단을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했으므로, 민간에서의 유흥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신윤복의 《혜원전신첩》 중 한 면인 〈청루소일〉은 기방의 한때를 묘사한 그림인데, 생황을 들고 마루에 앉아 손님과 상대하는 기녀와 시종을 거느리고 어딘가에서 막 들어오는 기녀가 그려져 있어 당대 기방의 면모를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단원·혜원과 같은 주류 화가들의 풍속화와는 다르지만 주목을 요하는 19세기말의 풍속화로 개항장에서 활발하게 매매되었던 ‘기산 풍속화’가 있습니다. 기산 풍속화의 의의는 김홍도를 위시한 18~19세기 전반 풍속화가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개항이라는 조선말기의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조선의 전반적인 풍속을 그렸다는데 있습니다.